

기성용 아깝다!

아스널전 중거리 슛 골키퍼 손 끝에 막혀

스완지, 0-1 패배 … FA컵 3라운드서 탈락

기성용(24·스완지시티)이 교체출전한 스완지시티가 아스널에 쟌 2012-2013 임플랜트 축구협회(FA)컵 대회에서 탈락했다.

스완지시티는 17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64강) 원정경기에서 후반 41분 채 월셔에게 결승골을 내줘 0-1로 패했다.

기성용은 팀이 0-0으로 팽팽히 맞서던 후반 15분 교체투입돼 30여 분간 뛰었다. 허벅지를 다했다가 그리운드에 돌아온 뒤 14경기 연속 출전이다. 기성용은 후반 40분 원발로 캡찌 중거리슛을 하기도 했지만 골키퍼의 손에 걸려 드롭에 성공하지는 못했다.

스완지시티는 후반전에 아스널의 파상 공세에 밀려 고전하다가 결국 경기 종료 5분여를 남기고 결승골을 내주고 말았다.

아스널은 후반전에 선수들을 교체투입하면서 헐거워진 스완지시티의

조직력을 파고들었다. 시오 월콧, 올리비에 지루, 월셔 등이 번갈아 날린 슈팅을 스완지시티의 골키퍼 미셸 봄이 몸을 날려 겨우 막아냈다.

아스널은 후반 24분 지루가 중거리 포로 스완지시티의 골문을 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1분 뒤에는 월콧이 수비수 한 명을 제치고 페널티 박스 좌측에서 슈팅을 했지만 골대 오른쪽으로 벗어나 아쉬움을 삼켰다.

이후 월셔가 계속 위협적인 슈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골키퍼의 품으로 들어갔고, 종료 10분여 전 월콧의 헤딩슛은 골대 왼쪽을 맞고 튀어나와 땅을 쳤다.

끊임없이 스완지시티의 골문을 두드리던 아스널은 후반 막판 결국 골문을 여는데 성공했다. 후반 41분 월셔가 페널티 아크 부근에서 강력한 원발 슛을 해 결승골을 뽑아냈다. 수차례 선방을 펼친 골키퍼 봄도 이번에는 손을 쓰지 못했다.

/연합뉴스



눈 위의 육상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개막을 앞둔 17일 강원 평창군 일펜시아 경기장에서 '눈 위의 육상' 종목인 스노슈잉 한국대표팀 선수들이 내리는 눈속에서 맹연습을 하고 있다. 스노슈잉은 동계 올림픽과 동계 패럴림픽에는 없는 스페셜올림픽만의 고유 종목이다.

/연합뉴스

펩, 뮌헨서 바르샤 영광 재현 할까



과르디올라 바이에른 뮌헨 지휘봉

루미니게 "분데스리가 전체에 도움"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의 전 사령탑인 펩 과르디올라(42)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독일)의 지휘봉을 잡는다.

뮌헨은 16일(현지시간)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유프 하인케스 현 감독에 이어 7월 뮌헨의 새 사령탑에 오른다"고 밝혔다.

현재 팀을 이끄는 하인케스 감독은 6월에 계약이 만료된다. 그러나 하인케스 감독이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때 따라 과르디올라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게 됐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계약기간은 3년이다.

지난해 바르셀로나 감독직에서 물러난 후 과르디올라 감독은 맨체스터 시티, 웰시 등 임글랜드 명문 클럽의 러브콜을 받아왔다.

2008년부터 바르셀로나를 이끌며 부임 첫해 트레블(정규리그·유럽축구연맹(UFCA) 챔피언스리그·스페인 국왕컵 우승) 달성을 비롯해 4년 동안 14개의 트로피를 차지해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칼 하인츠 루미니게 뮌헨 회장은 "과르디올라 감독을 데려올 수 있어 무척 기쁘다"며 "과르디올라 감독은 뮌헨뿐 아니라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전체 발전에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다.

뮌헨은 올 시즌 13승3무1패(승점 42)로 리그 1위를 달리는 강호다. 지난 시즌에는 유럽축구연맹(UFC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웰시(임글랜드)에 패해 우승컵을 놓친 바 있다. 현재 뮌헨에는 프랑크 리베리, 슈바인슈타이거, 필립 람, 마리오 고메스 등 스타급 선수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연합뉴스

EPL 굴욕 … 팬들이 뽑은 '2012 올해의 팀' 1명도 없어

자타공인 세계 최고 프로축구 리그로 꼽히는 임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가 국제축구연맹(FIFA)의 '월드 베스트 11'에 이어 유럽축구 팬들이 뽑은 '올해의 팀'에서도 철저히 외면당하는 꼴을 당했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17일 공식 홈페이지(www.uefa.com)를 통해 팬 투표로 선정한 '2012 올해의 팀'에 오른 선수 11명을 발표했다.

FIFA의 월드 베스트 11이 각국 축구선수들의 투표로 선정되는 데에 비해 UEFA의 올해의 팀은 홈페이지를 통한 팬 투표로 가려진다. 530만여명이 참가한 이번 팬투표에서는 올해의 팀에 뽑힌 11명 중 8명이 프리미어리가에서 배출되는 등 스페인의 프로축구의 초강세가 이어졌다. 나머지 3자리는 이탈리아 세리에A와 독일 분데스리가, 프랑스 리그앙 선수들이 한 명씩 채웠다.

UEFA가 팬투표로 올해의 팀을 선정한 것은 이번이 12번째인데 프리미

어리그 선수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초 FIFA가 발표한 월드 베스트 11도 프리미어리가 선수들이 싹쓸이하고 프리미어리가는 명함도 내밀지 못했다. '올해의 팀'에 프리미어리가에서 뽑힌 선수 8명은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양분했다.

◇UEFA.com 선정 '2012 올해의 팀' =**골키퍼** =이카르 카시아스(스페인·레알 마드리드) ▲**수비수** =세르히오 라모스(스페인·레알 마드리드), 헤라르도 피케(스페인·바르셀로나), 펠립 람(독일·바이에른 뮌헨), 티아구 실바(브라질·파리 생제르맹)

▲**미드필더**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스페인·바르셀로나) 사비 에르난데스(스페인·바르셀로나) 안드레아 피클로(이탈리아·유벤투스), 메수트 오질(독일·레알 마드리드) ▲**공격수**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바르셀로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레알 마드리드)

/연합뉴스



1월 20일(일)

▶**별고을무지개선수회** 1월 20일(일) 여수 금강산 신체 1월 20일(일) 08:00 염주체육관, 08:20 학동 중점사입구지하철역, 면접관, 08:35 광주역, 08:45 문예회관후문, 08:55 동광주웨딩프라자

▶**아스널** 1월 19일(토) 시리산 천왕봉, 진월동 신진마트앞 06:20, 염주체육관주차장 06:30, 한국병원 06:40, 문예회관후문 06:50, 비엔남 광주주차장 07:00 *다음카페 광주금강산야학회

▶**한울** 1월 19일(토) 고흥 팔영산, 남광주동 07:30 *다음카페 한울

▶**한국금강산야학회** 1월 19일(토) 011 620 2002

▶**한울** 1월 19일(토) 고흥 팔영산, 남광주동 07:30 *다음카페 한울

▶**한울** 1월 19일(토) 011 620 2002

▶**한울** 1월 19일(토) 011